

4 종합

의학도서관 1·2열람실 제2보존서고로 전환

조한음 기자 jhn0102114@khu.ac.kr

【서울】의학계열도서관 1·2열람실 운영이 종료됐다. 열람실의 용도를 중앙도서관 제2보존서고로 변경한데 따른 조치다.

중앙도서관은 ‘혁신 공간 창출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의 핵심은 기존 서고를 휴게와 학습, 연구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TF팀은 오래된 서적이나 대출량이 적은 약 12만 권의 장서를 수용할 공간을 검토했고, 의학계열도서관 열람실이 대안으로 결정됐다. 중앙도서관 3층 일부 서고와 중앙자료실 2·3층의 장서 약 12만 권이 동계방학 중 순차적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의학계열도서관 열람실을 택한 이유에 대해 TF팀은 공간 여건 외에도 낮은 이용률과 안전 문제를 꼽았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4년 공시 기준 의학계열 재적(한의대 제외) 학생 1,817명 가운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열람실 월평균 이용



중앙도서관 학술서비스팀 장소영 팀장은 “의학계열도서관 열람실을 제2보존서고로 전환함으로써 보존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조한음 기자)

인원은 5층 약 114명(6.3%), 6층 약 430명(23.7%) 수준이다. 또한 의과대학 건물 내에 위치한 의학계열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거리가 멀어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며, 외부

인 출입이나 단과대 간 마찰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바 있다. 중앙도서관 학술서비스팀 장소영 팀장은 “의학계열도서관 열람실을 제2

보존서고로 전환함으로써 보존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의학계열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 공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과대학 1층 휴게공간은 지난해 6월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아직 개방되지 않았다. 열람실 폐쇄 이후 대체 공간 확보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심재민(의학과 2022) 씨는 “강의실과 가까워 평소에도 자주 이용했는데, 이제는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1층 휴게공간도 아직 열리지 않아 불편하고, 학습 공간이라기보다 휴식 공간에 가까워 학습 공간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황성연(약과학 2021) 씨 역시 “약대 근처라 자주 이용했는데, 사전 안내 없이 갑자기 폐쇄된다는 소식을 들어 당황스러웠다”며 “의대 1층 휴게공간은 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어 다른 단과대 학생들은 갈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행정실은 “11월 중순에는 1층 휴게공간을 개방할 예정이며, 현재는 의과대학 학생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지만 추후 운영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TF팀은 “의학계열 단과대와 협의해 시험기간 등 필요 시 강의실 개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챗봇 ‘쿠옹쌤’ 사용률 저조…교수·학생 ‘사용량 확보’ 관건

이은서 기자 silverwest2002@khu.ac.kr

“PPT 자료를 기반으로 연습문제 30개 생성해 줘”

수업 중 궁금했던 점을 바로 해결하고, 과제나 시험 준비를 도와주는 AI 튜터 ‘쿠옹쌤’이 지난달 E-campus에 도입됐다. 교수자가 쿠옹쌤에 학습자료를 업로드하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쿠옹쌤을 이용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교수 참여율이 저조해 실제 사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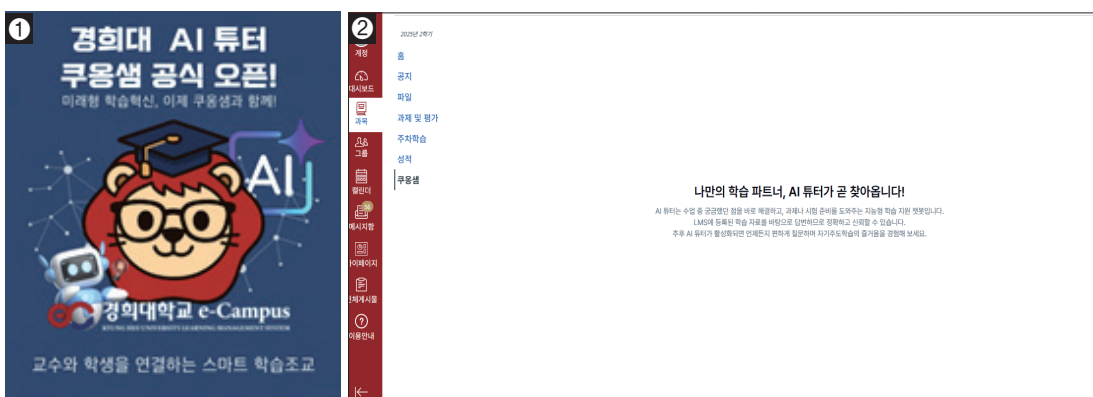
쿠옹쌤은 대표 마스코트 ‘쿠옹이’와 AI 학습 조교 ‘쌤’을 결합한 이름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도우미다. 학생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응답하고, 대화 맥락을 유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쿠옹쌤은 기존의 범용 AI(Chat GPT, Gemini 등)와 달리 검색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만일, 강의계획서나 PPT 등의 학습자료, 영상 자막 등 교수자가 제공한 자료로 검색을 제한할 경우, 검증된 교수자료만으로 답변이 생성된다. 반면

웹 서치를 허용하면 인터넷 전반의 정보를 바탕으로 폭넓은 탐색이 가능하다.

정보 탐색 이외에도 학생들은 쿠옹쌤을 통해 학기 초에는 강의계획서를 토대로 한 학습 목표를 설정, 학기 중에는 질의응답과 학습 관리, 학기 말에는 시험 대비용 퀴즈 생성과 개념 복습 요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상현 교수학습개발원장은 “AI가 대학 교육에 접목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맞춤형 학습 지원’이라며 “모든 학생을 일일이 케어하기는 어렵지만, 쿠옹쌤을 통해 교수의 도움에 가장 근접한 지원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AI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며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AI 학습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 원장은 “쿠옹쌤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연습문제를 만들거나,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복습할 수 있게 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쿠옹쌤은 학생뿐 아니라 교수자



① 교수자가 쿠옹쌤에 학습자료를 업로드하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쿠옹쌤을 이용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② 해당 화면은 교수자가 학습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아 쿠옹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 (사진=E-Campus 화면 캡처본)

도 활용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피드백 기반 교수법 개선’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질문과 학습 패턴이 누적되면, 교수는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지 파악해 강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지 원장은 쿠옹쌤의 최종 목표를 ‘학생의 수업 몰입도 향상’으로 꼽았다. 이어 운영 측면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사용량 확보’라고 언급했다. 지 원장은 “쿠옹쌤의 학습 성능을 높이려면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며 “많은 학생이 실제 학습 과정

에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처는 2018년 교내 AI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접목하기 위해 민원 응대 챗봇인 ‘쿠봇(KHU-BOT)’을 개발했지만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쿠봇의 경험을 바탕으로 AI 챗봇 ‘경희톡(KHU-TALK)’을 새롭게 선보였다.

경희톡은 ▲학생-교수 간 소통 및 정보공유 ▲사용자 그룹 내 정보 소식 공유 ▲대학 알림 정보 수신 등의 기능을 했다. 그러나 제작사 기술지원 종료, 서비스 계약 만료,

메시지 전송 오류 등 기술적 문제가 이어지며 장기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교수학습개발원도 “챗봇 도입 실패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며 “쿠옹쌤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의 실제 사용 양상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나 민원 접수 등을 통해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향후 기능확장과 시스템 안정화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